



## 2013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 세미나 디지털잡지시장 지난해 100% 성장

한국어도비시스템즈(대표 지준영, [www.Adobe.com/kr](http://www.Adobe.com/kr))는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약 250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, 어도비가 제공하는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의 최신 기술과 국내외 업계 트렌드 및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 도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'2013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 세미나'를 개최했다.

글 | 임남숙 기자 [sang@print.or.kr](mailto:sang@print.or.kr)



어도비시스템즈  
닉 보가티 수석디렉터

한국어도비시스템즈  
지준영 대표

팅 부문 수석 디렉터 닉 보가티(Nick Bogaty)가 디지털 퍼블리싱의 트렌드와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(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)의 최신 기술, 산업별 성공적 활용사례를 발표했다.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의 새로운 기술적 절차 및 한국 내 성공적 적용 사례에 관한 소개가 뒤를 이었다.

### 지준영 대표 “어도비 독특한 융합서비스 제공”

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지준영 대표는 “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출시로 멀티 디바이스 트렌드와 모바일 콘텐츠의 확산, 그리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혁신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. 이러한 변화에 맞

춰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은 단순히 콘텐츠 관리뿐 아니라 사이트 트래픽과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타깃 고객을 분류할 수 있는 독특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”며 “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와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이 접목된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행동 패턴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의 관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닉 보가티 디렉터 “DPS, 출판, 광고, 기업홍보물에 효과적” 닉 보가티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부문 수석 디렉터는 “2011년부터 디지털잡지는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2012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100% 성장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이고 있다”라며 “어도비가 공급하고 있는 DPS(Digital Publishing Solution)는 출판, 광고, 기업홍보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전 세계 시장에서도 디지털 잡지의 80%가 어도비 솔루션을 이용 중이다.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제이 콘텐츠리(옛 중앙M&B), 두산매거진,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를 비롯해 50여개 사이상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↻